

# 이념 중독증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1973년에 개봉된 영화 <추억> (The Way We Were)에는 유대인 공산주의자 케이트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스페인의 독재에 항거하고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미남인데다 글재주가 뛰어난 대학동기(허벌)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으나 남편의 소시민적 사고와 자유방임적인 생활방식을 용인할 수 없어 애기를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만다.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자신의 심각한 투쟁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속물적인 사고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사랑, 결혼, 자녀, 돈 같은 것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옳았던 것이다. 일종의 이념중독증에 걸린 것이다.

물론 “이념중독”이란 표현은 “노동중독”과 비슷

하게 “중독”의 본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다. 중독이란 어떤 물질(담배, 술, 마약)이나 행위(도박, 운동, 성)가 제공하는 쾌감에 사로잡혀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이 몰입되므로 쾌가망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독은 부정적이고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영화 “추억”의 케이트는 자신의 이념이 해롭다고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고상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었으며 제3자도 그의 입장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이트의 상태를 “중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념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몰입”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이념의 옳음에 대해서 “거룩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사랑, 남편, 자식, 친구 등을 상대화하고 포기했다.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야와 삶의 폭이 좁아지고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며 매우 독선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념중독은 약물이나 도박중독보다 더 위험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 약물이나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념 중독은 그것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동독이 없어지고 소련이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 있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념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도박중독 등은 주로 중독

자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이념중독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주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도나 문화조차 바꾸려 하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동조하지 않는 “오도된”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 포트 같은 독재자들은 심지어 수천만의 인명을 살상하기까지 했다.

비록 공산주의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치 이념에 사로잡히고 있다. 최근 하버드 법대 서스테인 (Cass Sustein) 교수가 쓴 <#공화국. 사회정보 시대의 분열된 민주주의>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란 책에 의하면 미국에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정당 당원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1960년에는 공화당원의 5%, 민주당원의 4%였는데 50년 후인 2010년에는 공화당원 49%, 민주당원 33%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도 보수, 진보의 이념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념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어떤 면으로도 기독교적이라 하기가 어려운 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절대다수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기독교인 상당수가 태극기 집회나 촛불집회의 열성분자로 나섰다. 미국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 분열되어 있고 한국 기독교도 이념적으로 더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시키고 있다.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념중독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이념은 종교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부정적인 의미 (“거짓 의식”)로 “이념” (Ideologie)이라고 비판했다. 이념이란 정치적 관점이 절대적인 진리로 둔갑해서 종교적인 확신으로 변질된 것이다. 영화 <추억>에서 공산주의는 케이트에게 종교와 다름없다.

그러나 진정한 고등종교, 특히 기독교는 이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념은 인간의 산물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철학자 파스칼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하게 철학하는 것이다” (Se moquer de la philosophie, c'est vraiment philosopher) 했다. 철학의 주 업무는 비판하는 것이고 비판은 자기비판에까지 이르러야 진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유는 철학보다 더

---

이념중독은 약물이나 도박중독보다 더 위험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 약물이나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념 중독은 그것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

높은 차원의 진리. 흔들리지 않는 아르키메데스의 받침대 (Archimedean Pont)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념도 조롱할 수 있어야 한다. 역대의 모든 이념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는 오늘의 이념들도 훗날에는 어리석고 별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상대적인 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중독은 우선 즐겁거나, 재미있거나, 좋아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념중독도 마찬가지다. 옳아 보이는 정치 이념을 따르는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 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지혜가 절대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이념도 상대화하고 절제하며 따라야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다. 